

중·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부적응 행동지표

이 규 미[†]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지각한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행동지표와 하위요인을 알아보고, 이러한 행동지표들이 중, 고 교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 84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에서 665문항이 수집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74문항을 추출하여 교사용 척도를 구성하였다. 562명의 교사들(중학교 307명, 평균경력 11.56년, 고등학교 255명, 평균경력 8.55)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그들의 응답결과가 분석되었다. 신뢰도 검증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31개의 행동지표가 선정되었고 이들 문항에는 문제행동(10문항), 우울반응(5문항), 수업 및 학업관련행동(5문항), 공격/적대적 행동(4문항), 교우관계(4문항), 교사관계(3문항) 등 6개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총 설명변량 64.55%). 이들 문항에 대해 중, 고 학교급 별로 분리하여 요인분석을 했을 경우 요인과 요인 내 문항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각 요인에 대한 설명변량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교사들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관찰한 행동목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우리나라 중고생의 학교부적응에 대한 구성개념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척도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학교적응, 교사지각, 행동지표

이규미는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 규 미,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전화 : 031-219-1792 E-mail : kmee@ajou.ac.kr

최근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학생 중에서도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정신건강 문제나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중, 고교 전체 학생의 1.8% 수준('97년 2.0%, '00년 1.7%, 02년 1.9%)으로 매년 6-7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2001년도의 경우 15-19세 청소년 중 학교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업 중단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약 82,531명으로 전체 학령기 청소년인구(3,550,222명) 중 2.3%에 달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우리나라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의 약 1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집계도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2). 최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교육인적자원부(2003)의 대안교육기획확대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2004)의 학업중단 청소년종합지원체제구축 등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학교를 떠나기 전 학교부적응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상담 과제이기도 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재학생 중에서도 중고생 1,053명의 응답자 중 30%(315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한달에 2-3번 이상'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약 7%가 '거의 매일'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구자경, 홍지영, 장유진, 2001). 즉 재학생 중에 학교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도탈락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Missall(2002)에 의하면 영어권 내의 학교적응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논문이 3,068편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사용하는 학교적응의 개념은 연구자들마다 너무 다양하고, 대부분 심리적 상관들 혹은 가설적 개념들(예, 인기도, 자존감 등)에 의해 정의 되어 왔기 때문에 정의

와 측정이 어렵고 이를 개입방법과 연결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도 개인 특성 및 심리적 변인, 부모 혹은 가정변인,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학업성취도 등 학교적응에 대한 관련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예, 김용희, 1989; 김지혜, 1998; 문선모, 1977; 문은식, 2002; 유윤희, 1994; 임정순, 1993; 정유진, 1999; 주현정, 1998; 차유림, 2000; 황경미, 1998)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친구관계 Buhs, & Ladd, 2001; Ladd & Coleman, 1997;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7; Spencer, 1999; 부모관계, DuBois, Eitel, & Felner, 1994; 기질; Taylor & Machida 1994; 교사관계 Birch & Ladd, 1997 등). 여기에 교육대학원에서 발표된 논문까지 포함한다면 학교적응은 거의 모든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이 이미 검증되어 왔을 정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적응이 너무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이 있어서 상담이나 개입이라는 면에서 어느 변인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시사하지만, 한편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로 남게 할 위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교적응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학교적응에 대한 정의는 가설적인 것들로 검증되거나 직접 관찰된 것이 아니며 각자의 연구관심에 따라 정의 되어 왔다(Missall, 2002).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학교교육의 과정과 상황에서 아동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황경미, 1998)"과 같이 포괄적인 정의가 있는가 하면, 학교 적응을 학교문화에 대한 사회화(acculturation)로 설명하는 정의도 있다(Bhattacharaya, 2000; Spencer, 1999)

Lazarus(1976)는, 적응이란 자신의 필요 뿐 아니라 환경의 요구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두 종류의

과정 즉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견해에 기초한 정의도 있다(김지혜, 1998; 김용래, 1993; 문은식, 2002; 문은식, 김충희, 2002; 정유진, 1999). 즉 학교적응이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김지혜, 1998)”, 또는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학생의 외현적, 내재적 행동(문은식, 2002; 문은식, 김충희, 2002)”과 같은 정의 등이다. 그런가 하면, Ladd, Kochenderfer와 Coleman (1997)은 학교적응이 학교환경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감정으로, 특히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편안해 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라고 본다. Berndt 와 Keefe(1995)는 선행연구들에서 강조한 3가지 측면 즉 교실활동에서의 긍정적인 참여, 적절한 교실행동 특히 방해하는 행동이 없는 것, 성적표로 확인할 수 있는 학업성취가 학교적응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Missall(2002)은 많은 정의들이 전체 학교 적응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정의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행동들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개입 가능한 기술에 기초하여 (skill-based), “아동이 학교의 학문적, 행동적(사회적) 요구들과 만나는 범위”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그의 연구대상이 되었던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정의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적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좀더 구체화된다. 학교적응에 포함되는 하위영역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여 연구자들은, 학업성취도, 준비도, 공부에 대한 흥미(김지혜, 1998; 문은식, 2002; 문은식, 김충희, 2002; 배영태, 2003; DuBois, Eitel & Felne, 1994; Kurdek, Fine & Sinclair, 1995;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인지기술(문선모, 1977), 출석 혹은 결석(배영태, 2003; DuBois, Eitel & Felne, 1994), 교우관계(문선모, 1977; 문은식, 2002; 문은식, 김충희, 2002; 유윤희, 1994; 정순례, 1992;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교사관계(문선모, 1977; 유윤희, 1994, 최지은, 2003), 문제행동(김지혜, 1998; Kurdek, Fine & Sinclair, 1995) 수업참여도 등 학교수업 관련(김지혜, 1998; 문선모, 1977; 배영태, 2003; 유윤희, 1994), 자아개념(DuBois, Eitel & Felne, 1994), 학교규칙(배영태, 2003; 유윤희, 1994), 학교생활에의 참여, 혹은 활동성(배영태, 2003; 정순례, 1992; 황경미, 1998; Birch & Ladd, 1997), 학교생활만족도, 학교 선호 또는 학교회피 등 학교에 대한 태도, 감정, 지각(김지혜, 1998; 문은식, 2002; 문은식, 김충희, 2002; 정순례, 1992; 황경미, 1998; Birch & Ladd, 1997;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자기통제(문선모, 1977), 자발성(Birch & Ladd, 1997) 등을 하위영역으로 설명하거나 학교 적응을 측정하는 도구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학교 적응요소들은 초, 중, 고 학교별로, 사회적 배경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1989)는 중3 재학중에 부적응행동으로 인하여 중퇴한 학생 20명을 중심으로 중퇴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한 바 있는데 이들이 중 1때는 특별히 출석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개근생도 많았는데 2학년부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결석, 가출의 행동문제가 나타났고, 징계도 나

타났다고 보고했다. 즉 연령별 혹은 학교급별로 학교적응에 포함되는 요소는 다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부적응은 중도탈락, 학업중단과 연결된 개념을 이해되곤 하는데 이 모두가 학교 내에서 시작되어 학교를 떠나는 데까지 연속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이라는 이미 학교를 떠난 경우를 의미하고, 중도탈락의 개념으로 보면, 중도 탈락한 경우 뿐 아니라 중도탈락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잠재된 중도탈락학생으로 나누어 생각하게 된다. 학교부적응은 중도탈락, 혹은 학업중단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나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중도탈락보다 덜 심각한 상태로 이해되거나 두개의 개념에서 보면 선행적, 원인적 상태가 된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학생의 조기발견은 치료보다는 예방적 개입에 가까운 개념이 될 것이다. 또한 관심만 기울인다면 학교 부적응 학생을 누구보다 빨리 발견하여 이를 직접 상담하거나 적절한 상담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 또는 학교상담자가 될 것이다. Kelly와 Corcoran(2003)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 학생이 위기상태에 있을 때 잠재된 성공 혹은 실패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의 자퇴욕구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교사들이 청소년의 학교성적,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정도, 교칙준수여부, 친구관계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고 면담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구자경, 홍지영, 장유진, 2001).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중요한 평가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교사들로부터 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들을 평정자로 참여시키기도 한다(Birch & Ladd, 1997;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7).

실제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정보 중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가장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즉 중학교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은희, 1992)에서 우리나라의 담임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지각정보원으로 관찰 가능한 자료를 선호하고, 첫째, 교사자신의 관찰, 둘째 교사자신의 기록, 셋째 가정환경조사지, 넷째, 다른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신뢰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이미 자신의 주관적인 관찰 내용에 따라 학생을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 학교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교사용 도구가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학교적응에 대한 교사평정척도로는 Birch와 Ladd(1997)가 유치원학생들 대상의 그들 연구를 위해 제작 사용한 TRSSA(Teacher Rating Scale of School Adjustment)가 있다. TRSSA는 학교선호(School Liking), 학교회피(School Avoidance), 협동적 참여(Cooperative Participation), 자발성(Self-Directedness) 등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선호는 아동이 학교를 얼마나 좋아하는가에 대한 교사의 지각을 알아보는 것으로 학교에 오기를 좋아함, 학교를 싫어함(역문항), 학교를 재미있어함, 대부분의 교실활동을 즐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회피는 교실환경을 피하기 위한 아동의 노력에 대한 교사의 지각을 알아보는 것으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핑계를 만듦, 양호교사를 보고자 함, 학교에서 아픈 척함, 집에 갈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물음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적 참여는 교사의 권위에 대한 수용과 교실규칙과 책임에 대한 동조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교사의 지시에 따름, 학교 기물을 책임 있게 다룸, 교사의 지시를 신중하게 들음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발성은 교실에서 보여주는 독립적이거나 자발적인 행동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도전을 추구함, 자기지시적임, 독립적으로 활동함, 많은 도움과 안내를 요함(역문항)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교사가 직접 관찰 가능한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처음으로 공식적인 교육체제에 적용해야하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다른 대상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학교적응여부를 나타내는 행동지표는 대상학생의 연령 혹은 초, 중, 고 학교급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어떤 행동을 발견했을 때 이를 학교부적응으로 인지하는지 교사가 지각한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행동지표를 알아보려고 한다.

방 법

참여자

행동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84명의 초(16명), 중(40명), 고(38명) 교사가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현직교사이며 교육대학원 재학생들로 이들 중 56명은 상담심리 전공생이고, 28명은 타 전공생들이었다. 이들에게는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정의와 문항작성 예시문을 제시하고 행동목록을 문장으로 작성하되 개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기초 조사된 문항을 분류하여 행동목록을 추출하는 작업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이며, 교육대학원 졸업생 3명(평균 교직경력 15.8년)을 포함하여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추출된 문항은 6명의 중, 고 교사들(각 3명씩, 평균교직 12.5년)에 의해 문항검토 작업

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질문지는 680명의 교사에게 배부되었고 도중 1개교가 실시하지 못하여 590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한 응답자수는 562명이었다(중 10개교 총 307명/남62,여 245/평균경력 11.56년; 고 6개교 총 255명/남 128명, 여 127명, 평균경력 8.55년).

절차

학교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적응 학생행동목록에 대한 기초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학교부적응학생이란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학생이며 즉 학교생활을 보다 잘 지내기 위해서는 학업지도, 상담, 생활지도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와 같은 학생을 발견하는데 참고하는 행동지표를 한 문장씩 생각나는 대로 적도록 요청하였다. 이때 ‘결석이 잦다, 지각을 자주한다,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 3문항을 예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상담심리 전공, 교직 등 2개의 수업에서 교수의 감독 하에 과제물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된 목록은 완전히 겹치는 문장을 제외하고는 665개였다.

기초 조사된 665문항에서 겹치는 문항과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하고 행동목록을 추출해 내는 작업은 3명의 현직교사들의 협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자가 본 작업에 적용할 원칙을 문서로 제시하였고, 협조교사들은 이 원칙을 적용하여 문항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3명의 동의 하에 문항을 삭제, 통합하였다. 이를 다시 본 연구자가 검토한 후 74개의 문항을 추출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때 적용한 주요작업원칙으로는 첫

째, 교사가 학교에서 직접 관찰 가능한 행동목록으로 한정하였다. 즉 ‘부모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와 같이 직접 관찰이 어려운 문항, ‘결손가정 환경이다’ 등과 같이 관련변인이 될 수 있으나 행동목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제외하였다. 둘째, 관찰 가능한 행동목록이라기 보다 개인특성이나 성향에 대한 교사의 판단 문항(예, 대인관계능력이 떨어진다),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있거나 애매모호한 문항(예,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튀는 행동을 한다)도 제외하였다. 셋째, 중복된 문항은 이들 문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항으로 재 작성하였다. 예를 들면, 배식당번 활동에 관심 없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 집단 활동에 소극적이다, 주변 청소 당번 등 학급 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항을 대표하여 ‘학급활동이나 조별 모임에 대해 소극적이다’로, 머리를 염색하거나 학생답지 않게 하고 다닌다, 화장을 하고 다닌다, 교칙에 어긋난 복장을 한다, 복장이 불량해 진다는 ‘염색 혹은 화장 등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복장으로 학교에 온다’로 작성되었다. 이렇게 추출된 74개의 문항을 내용으로 하여 예비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다시 중, 고 교사 각각 3명 전체 6명의 교사들이 검토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 검토과정에서 질문지에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지, 꼭 포함되어야 하는데 빠진 문항이 있는지와 실시 상의 조언을 구하였는데 첨가된 문항은 없었으며 문장이나 용어에 일부 수정이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 문항에 대해 학교부적용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데 매우 동의한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의 5단계 척도 74문항의 질문지가 완성되었다. 응답요령을 통해 각자 재직 중인 학교장면에 한해서 답해줄 것과 각 문항이 상호관련성이 없는 독립된 문항임이 강조되었다.

설문조사는 각 학교에 재직 중인 협조자에 의해 2주에 걸쳐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680부를 배부하였으나 1개교가 실시에 응하지 못하여 590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56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응답결과를 가지고 신뢰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학교부적용 학생 행동지표 질문지의 내적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문항수집을 통해 선정된 74개의 문항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결과 문항-총점 간 상관(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이 .30미만인 4개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70개의 문항에 대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고, 추출된 요인에 대해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했다. 구조계수 행렬에서 상관계수가 .50 미만이고, 여러 요인들에 공통으로 부하되어 요인규명이 어려운 39개의 문항들을 제거하여 최종 31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31개의 문항에 대해 다시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각 하위요인 간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어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적용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요인분석을 통한 Scree 검사를 한 결과,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이 6개가 나왔다(총 설명변량 64.55%). 최종 선정된 31개 문항에 대한 전체 요인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1요인의 설명변량은 30.88%, 고유값(eigen value)은 9.575였고, 2요인의 설명변량은 13.31%, 고유값은 4.127이었다. 3요인의 설명변량은 7.187%, 고유값은 2.228이었다. 4요인의 설명변량은 4.791%, 고유값은 1.485, 5요인의 설명변량은 4.275%,

표 1. 31개 문항에 대한 전체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A8	.890			.315	.332	.387
A7	.773			.355	.368	
A11	.743			.403	.395	.381
A1	.680					
A2	.616					
A47		.833				
A50		.809				
A51		.806				
A45		.806			.402	
A26		.797			.308	
A42		.751			.335	
A46		.746		.302	.335	
A27		.745				
A44	.443	.671			.386	
A43	.438	.586		.399	.387	.308
A20			.826			
A21		.410	.728			.309
A19			.703	.322		
A22			.698	.324		
A61	.338			.903	.374	.332
A60	.341			.878	.377	.366
A62	.336			.845	.369	.435
A66	.351			.711	.351	.473
A30	.303	.339		.309	.907	
A31	.329	.332			.875	.340
A29	.410	.373		.359	.838	.349
A56			.341	.373	.326	.796
A53	.365			.337		.794
A55	.400			.409	.377	.763
A57	.376			.411	.333	.747
A63						.704
고유치	9.575	4.127	2.228	1.485	1.325	1.271
설명분산 %	30.888	13.313	7.187	4.791	4.275	4.100
누적분산 %	30.888	44.201	51.388	56.179	60.454	64.554

* 각 요인 부하량은 절대값.

표 2. 학교부적응 학생 행동지표의 요인구조

요인명(신뢰도)	문항	요인부하값	설명량(고유값)
수업 및 학업관련 행동 ($a=.78$)	8. 수업 중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809	30.888 (9.575)
	7. 수업 중 집중하지 못하고 딴 짓을 한다	.773	
	11. 과제 및 준비물 지참에 무성의 하다	.743	
	1.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	.680	
	2. 흥미를 갖는 교과가 없다	.616	
문제행동 ($a=.92$)	47. 교내 폭력사건과 관련된다	.833	13.313 (4.127)
	50. 음주를 한다	.809	
	51. 흡연을 한다	.806	
	45. 염색 혹은 화장 등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으로 학교에 온다	.806	
	26. 불량한 학생들과 패거리를 지어 다닌다	.797	
	42.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	.751	
	46. 또래들과 돈거래를 한다	.746	
	27. 학교 밖 친구들이 많고 자주 어울린다	.745	
	44. 학교에 책가방이나 교과서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	.671	
43. 학교생활과 무관한 물품(사복, 음란서적, 게임기 등)을 갖고 다닌다	.586		
교우관계 ($a=.76$)	20. 친구들로부터 자주 놀림(야유)를 당한다	.826	7.187 (2.228)
	21. 급우들이 짝이 되는 것을 기피한다	.728	
	19. 또래 일을 교사에게 고자질한다	.703	
	22. 군것질이나 돈으로 친구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698	
공격/적대적 행동($a=.88$)	61. 남에게 책임전가를 한다	.903	4.791 (1.485)
	60.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878	
	62. 사소한 일에 심하게 화를 낸다	.845	
교사관계 ($a=.85$)	66. 상황에 맞지 않는 과잉행동을 한다	.711	4.275 (1.325)
	30. 교사의 눈치를 심하게 살핀다	.907	
	31.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875	
우울반응 ($a=.83$)	29. 교사를 피해 다닌다	.838	4.100 (1.271)
	56.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다	.796	
	53. 말이 적다	.794	
	55. 표정이 어둡다	.763	
	57. 행동이 굼뜨고 느리다	.747	
	63. 쉬는 시간에 자리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	.704	

표 3. 각 요인 간 상관관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4	요인 5	요인 6
요인 1	1.000					
요인 2	.329*	1.000				
요인 3	.212*	.349*	1.000			
요인 4	.468*	.349*	.381*	1.000		
요인 5	.457*	.453*	.309*	.441*	1.000	
요인 6	.473*	.168*	.352*	.554*	.438*	1.000

* $p < .05$ ** $p < .01$

고유값은 1.325, 6요인의 설명변량은 4.100%, 고유값은 1.271이었다. 문항내용을 검토한 후 1요인을 '수업 및 수업관련행동', 2요인을 '문제행동', 3요인을 '교우관계' 4요인을 '공격/적대적 행동', 5요인을 '교사관계', 6요인을 '우울반응'으로 명명하였다. 중고등학교 교사 전체집단이 지각한 학교부적응 학생행동지표의 요인구조와 문항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또한 각 요인 간 상관계수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즉 각 문항은 상호관련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요인4(공격/적대적 태도)와, 요인6(우울반응)은 .554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고, 요인 2(문제행동)과 요인6은 .168로 가장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시 이들 31개 문항에 대하여 중, 고별로 나누어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중, 고 간에 나

타나는 차이를 보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에서 문항 간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각 문항, 요인별 고유치와 설명량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중, 고 각각의 요인별 고유치와 설명량은 표 4, 표 6과 같이 나타났으며, 중, 고 별 각 요인 간 상관관계는 표 5, 표 7과 같다.

중, 고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수업 및 학업관련 행동을 가장 중요한 학교부적응 요인으로 지각하고 있지만, 중, 고에 따라 학교부적응의 중요 측면으로 지각하는 영역이 달랐다. 즉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에서는 수업 및 학업관련행동(30.88%), 문제행동(13.313%), 교우관계(7.187%) 순으로 설명력을 나타냈으나, 분리한 후 실시한 요인분석에서 중학교 교사들은 문제행동(27.770%), 우울반응(13.469%), 교우관계(8.064%)를 보다

표 4. 중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부적응 학생 행동지표 요인 별 고유치와 설명량

	요 인 명					
	문제행동	우울반응	교우관계	공격/적대적 행동	수업 및 학업관련행동	교사관계
고유치	8.609	4.175	2.500	1.724	1.427	1.353
설명분산%	27.770	13.469	8.064	5.561	4.602	4.364
누적분산%	27.770	41.239	49.303	54.864	59.466	63.830

표 5. 각 요인별 상관관계(중학교)

	문제행동	우울반응	교우관계	공격/적대적 행동	수업 및 학업관련행동	교사관계
문제행동	1.000					
우울반응	.097	1.000				
교우관계	.299*	.332*	1.000			
공격/적대	.333*	.473*	.293*	1.000		
수업/학업	.271*	.382*	.143*	.426*	1.000	
교사관계	.402*	.354*	.220*	.372*	.441*	1.000

* $p < .05$ ** $p < .01$

표 6.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부적응 학생 행동지표 요인 별 고유치와 설명량

	요 인 명					
	공격/적대적 행동	문제행동	교우관계	수업 및 학업관련행동	교사관계	우울반응
고유치	10.187	4.269	2.226	1.378	1.308	1.139
설명분산%	32.860	13.772	7.181	4.446	4.218	3.673
누적분산%	32.860	46.632	53.813	58.259	62.478	66.151

표 7. 각 요인별 상관관계(고등학교)

	공격/적대	문제행동	교우관계	수업/학업	교사관계	우울반응
공격/적대	1.000					
문제행동	.340*	1.000				
교우관계	.441*	.365*	1.000			
수업/학업	.495*	.363*	.247*	1.000		
교사관계	.497*	.488*	.371*	.458*	1.000	
우울반응	.619*	.201*	.338*	.543*	.505*	1.000

* $p < .05$ ** $p < .01$

강조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사들은 공격/적대적 행동(32.860%), 문제행동(13.772%), 교우관계(7.181%)를 강조하고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각 요인 간 상관관계는 우울반응과 공격/적대적 태도가 .4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제행동과 우울반응은 의미 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들이 지각한 학교부적응 요인들 간에는 중학교 교사들이 지각한 것에 비해 대체로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부적응은 한 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이라기 보다 총체적인 부적응 문제로 지각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각 요인 중에서 공격/적대적 태도와 우울반응이 .619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문제행동과 우울반응이 .201로 가장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교사들을 참여자로 하여 그들이 지각한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행동지표를 알아보고 그에 포함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교사의 중, 고 소속에 따른 지각차이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교사들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목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학교부적응 개념을 명료화하고, 이와 관련된 척도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중, 고 교사들이 지각한 학교부적응행동지표로 31개의 항목이 추출되었다. 이는 교사들이 직접 관찰가능하고, 경험적으로 학교부적응과 관련이 깊은 것들로 학교현장에서

부적응학생을 조기 발견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31개의 행동지표에는 문제행동, 우울반응, 수업 및 학업관련행동, 공격/적대적 행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의 6개 하위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학교적응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항목들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한편 우울반응, 공격/적대적 행동과 같이 학교에서의 심리적 불편감을 나타내는 행동지표가 포함된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 고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수업 및 학업관련행동에 속하는 행동지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중, 고를 구분한 요인분석에서는 각각 차이가 있었다. 즉 중학교 교사들은 문제행동, 우울반응, 교우관계 순으로, 고등학교 교사들은 공격/적대적 행동, 문제행동, 교우관계를 강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중고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수업 및 학업관련행동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중학교 담임교사들이 실제 학생 평정에서 학업지향적 지각행동경향을 나타내 보였다는 주은희(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문제를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지각하는 경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출석 혹은 결석(배영태, 2003; DuBois, Eitel & Felne, 1994), 문제행동(김지혜, 1998; Kurdek, Fine & Sinclair, 1995), 학교규칙(배영태, 2003; 유은희, 1994) 등의 영역이 이에 속할 것이다. 실제 학교부적응으로 중3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중퇴한 학생에 대한 연구(김용희, 1989)에서도 어떤 요인보다 행동문제와 교우관계, 그리고 가정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Ekstrom, Goertz, Follack, 그리고 Rock(1986)도 중도탈락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 즉 개인적 배경, 가정의 교육적 지원,

학업과 관련된 능력과 태도, 행동상의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이 4가지 영역 중에서도 청소년의 중도탈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동상의 문제와 성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추출해 낸 요인들은 상관이 가장 낮게 나온 문제행동-우울을 제외하고, 모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즉 교사들이 지각한 학교부적응 행동은 각자 독립된 영역의 행동문제라기 보다 전반적인 영역에서 상호관련성을 갖는 행동문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각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우울과 공격/적대적 태도요인이 중, 고 모두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공격/적대적 태도가 우울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케 한다. 또한 문제행동과 우울은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을 뿐 아니라 중학교 교사들의 반응에서는 의미 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교부적응이 외현화, 즉 행동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울반응과 같이 내현화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행동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 두 요인을 독립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학생 개개인의 행동표현양식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본 연구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직접 부적응 학생을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지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교사들로부터 수집된 원자료에 기초하여 연구되어졌다. 이러한 방법은 학교에서 직접 관찰 가능한 행동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원자료가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행동지표를 보다 타당한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문항을 발굴하여 보완하

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들의 지각을 토대로 연구된 이 행동지표들이 실제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상태를 평가해 낼 수 있는지 다양한 준거제시와 함께 다른 학교적응 지표들을 토대로 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교현장은 중요한 상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다른 주제에 비해 학교적응을 비롯한 학교상담과 관련된 제반주제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상담연구가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3). 대안교육기회의 확대·내실화 추진방안.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
- 구자경, 홍지영, 장유진 (2001). 청소년의 자퇴요구 실태와 관련특성연구. 학교를 떠나고 싶은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상담전략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청소년종합상담실.
- 김용래 (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요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희 (1989). 중학교 학교생활 부적응과정과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1998). 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선모 (197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 4. 19-28.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발전논총. 23(1).

- 153-167.
- 문은식, 김충희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배영태 (2003). 학교중도탈락의 선행요인과 판별. *청소년상담연구*, 11(2). 한국청소년상담원, 23-35.
- 유윤희 (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적 간의 관계분석 -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순 (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순례 (1992). 현실요법에 근거한 학습방법이 중학생의 교과 및 학교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유진 (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은희 (1992). 한국 중학교 담임교사의 학생지각에 대한 연구. *연세교육연구*, 5(1)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43-62.
- 주현정 (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유림 (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4). *청소년상담소식*. 2004년 2월호.
- 황경미 (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rndt, T. J., & Keefe, K.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 1312-1329.
- Birch, S. & Ladd, G.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Bhattacharaya, G.(2000). The school adjustment of South Asian immigrant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dolescence*, 35(137), 77-86.
- Buhs, E. S., & Ladd, G. W. (2001). Peer rejection as an antecedent of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 examination of mediating processes.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550-560.
- Ekstrom, R. B., Goertz, M. E., Follack, J. M., & Rock, D. A. (1986). Who drops out of high school and why? Finding from a national study. *Teachers College Record*, 87, 356-373.
- Hester, P. (2002). What teachers can do to prevent behavior Problems in school. *Preventing School Failure*, 47(10), 33-38.
- Kelly, P., & Corcoran, C. A. (2003). The classroom teacher's role in preventing school failure. *Kappa Delta Pi Record*, 39 (2), 84-87.
- Kurdek, L. A., Fine, M. A., & Sinclair, R. J. (1995). School adjustment in sixth graders: parenting transitions, family climate, and peer norm effects. *Child Development*, 66, 430-445.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ship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6), 1181-1197.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3rd ed.). New York: McGraw-Hill.
- Missall, K. N. (2002). *Reconceptualizing early school adjustment: a search for intervening variables*.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Niebuhr, K., & Niebuhr, R. (1999). An empirical study of student relationships and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 119* (4), 679-681.
- Spencer, M. B. (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43-57.
- Wentzel, K. R. (1999). Social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Commentary.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59-69.
- 원고 접수일 : 2004. 2.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4. 4. 19
게재결정일 : 2004. 5. 8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School Maladjustment Behavioral Index

Kyu-Mee Lee

Ajou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what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perceive the School Maladjustment Behavioral Index and its subfactors, and then about how these indexes could be different to middle school teachers and high school teachers. For this 665 items were collected from preliminary survey of 84 teachers, from which 74 question statements were made for the teacher test. 562 teachers are involved, among whom 307 are from middle schools, with average 11.56 teaching years 255 from high schools, with average 8.55 teaching years. By analyzing result of teachers' answers, 31 behavioral indexes could finally be recognized through reliability test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re were 6 general factors in the questionnaire, such as problematic behavior (10question items), depressive response (5 items), classroom- and academic-related behavior (5 items), aggressive/repulsive behavior (4 items), peer relationship (4 items), and teacher relationship items) (total variance explained 64. 55%). We find it one of the significances of this study to use behavior lists, which were prepared from teachers working in the school's actual field. Furthermore it can help to know constructive concept of school maladjustment and develop measurement tool for it.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teacher's perception, Behavioral Index